

생동감 넘치는 조직의 힘으로, 빈곤과 차별의 벽을 넘는다



부산반빈곤센터소식지

최비름



1017기자회견문
불평등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

여는 시: 슬픔은 어디에서 올라
1017을 맞아 우리사회의 빈곤을 되새기며 | 회원탐방: 이연승
영화 '미세리코르디아'를 통해 회의해 보는 우리 세계의 죄와 벌
특별기고: 일상의 작은 일에 감사하는 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큰 파도가 됩시다 | 초량전통시장
회원참여 후기 | 바닷가, 가을소풍

01 여는 시

슬픔은 어디에서 올까 | 한숨배

02 여는 글

2025 1017 빈곤철폐의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빈곤'을 되새기며 | 김원석

03 표지이야기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 기자회견문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 | 최고운

05 사진으로 보는

08 회원탐방

이연승 | 편집팀

15 회원기고

영화 '미세리코르디아'를 통해
회의해 보는 우리 세계의 죄와 벌 | 김남영

* 표지 사진은 10월 17일, 빈곤철폐의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모습입니다(사진 : 이인우 작가).

* 아래 사진은 10월 30일, 단편영화 '늦은 화해'팀의 종파티
모습입니다.



17 특별기고

일상의 작은 일에 감사하는 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 박민희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큰 파도가 됩시다 | 조은혜

19 맛집탐방

초량전통시장 | 김민수

21 참여후기

장애 빈민 명절맞이 합동추모식 | 박미정
가을소풍 | 방진숙

22 가을소풍 백일장 수상작

바닷가, 가을소풍 | 이연승

23 회계 및 활동보고



슬픔은 어디에서 올까

한숨배

슬픔은 어디에서 올까

어느 묘지명이 새겨진 돌 갈라진 틈 사이에서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이를 만나러 가는 길 신호등 주황불 속에서
불탄 건물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나서
외로운 사람의 머리통이 멀리 작아지는 걸 보면서
김광진의 편지를 들을 때마다
나는 아직 있고 당신은 온데간데없는 이 모순 속에서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이 없고 없을 때
하나도 미안하지 않은 사과와 하나도 반감지 않은 인삿말 속에서
젊음과 늙음에서
그저 어린 이와 그저 늙은 이들에게서
토마토와 낙지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802호에서
부유함에서
사건명 '중대재해'에서
소망이 없고 없고 또 없을 때
상실 뒤에서
기쁨에서
연대에서
아름다움에서
사랑에서

사랑은

사랑은 어디에서 올까

그 모든 슬픔에서



2025 1017빈곤철폐의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빈곤'을 되새기며

즐거운 가을소풍을 다녀오니 어느새 바람이 차게 느껴지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는 10월은 이맘때 항상 기획되어 오고 있는 1017 빈곤 철폐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되고, 주변의 다양한 빈곤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빈곤'이라 하면 흔히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빈곤은 훨씬 더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사회의 구조적 결핍이 얽히고설켜 만들어 낸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형태의 노동으로 생계를 걱정하고, 누군가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적 단절과 배제를 경험한 이들은 관계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고, 반빈곤 활동 속에서는 죽음에서조차 빈곤을 경험해야 하는, 연고가 없는 분들과 공영장례 조문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역시도 이중 삼중의 빈곤을 마주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채용에 불이익을 보는 것은 당연하고,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나마 투쟁으로 만들어낸 권리중심형 일자리조차 행정기관이 만들어낸 각종 장벽들로 인해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활동지원서비스 또한 개개인의 생활욕구와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표로 인해 생존권과 같은 활동지원 서비스에 있어서도 생존시간의 빈곤을 경험하는 등 이외에도 수많은 빈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전쟁위기 등의 요인들로 에너지 빈곤이 화두가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본주의는 끝없이 빈곤을 양산하고,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해갈수록 새로운 빈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1017빈곤철폐의날은 그런 의제들이 모이고 의제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일 거라 생각합니다. 쇠비름은 그러한 고민들이 쌓이고 기록될 수 있는 공간이자, 반빈곤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녹아든 창구와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김원석 팀장>

2025년 1017 빈곤철폐의날 부산조직위 기자회견문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서민들은 고물가에 고통받고 있다. 지난 5년간 먹거리 물가가 20% 넘게 올랐다(국가데이터처, 2025). 과일, 계란, 빵 등은 30% 넘게 급등했다. 뿐만 아니라 냉난방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모두 상승하여 취약계층은 생존과 삶의 질 자체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은 2.9% 올랐다. 2026년 1인가구 생계급여는 약 82만원으로 전년대비 6만원 올랐다. 빈곤층은 당장 올 겨울 김장을 포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을 더 옥죄고 있다. 3년 전, 서울의 어느 반지하 집에서 폭우로 인해 집안에서 일가족이 익사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 우리는 언제나 불안정한 주거환경에서 폭우와 폭염, 그리고 혹한을 고스란히 견디며 ‘운이 좋아’ 살아남기를 바라야 하는가.

2023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역대 최고인 35.5%를 기록했고(통계청, 2024), 1인 가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OECD 중 최악 수준이다.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힘든 1인가구와 노인 비중은 높아지는데 여전히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아주 더디게 올라 15%에 머물고 있다(OECD, 2025). 암담한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비수급 상태인 빈곤층이 수십만명이고, 이들 중 임시직,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의 비중도 높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완전히 철회되지 않고 남아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단순히 예산논리로 치부하고 있다. 지금도 수급자들은 적자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빚을 지거나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의료급여 개악을 완전 철회해야 한다.

불평등과 빈곤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다.

부산에는 ‘대연우암공동체’라는, 마을만들기가 유행하기 이전부터 자립적으로 건설한 공동체가 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에 부산시가 공공개발을 포기하며 민간자본이 들어왔고, 부산시의 방관 하에 민간자본은 모범적인 공동체를 오로지 이윤의 논리로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아파트는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 공동체는 돈으로 만들 수 없다. 주민들의 주거생존권을 위해서 부산시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부산의 소위 ‘부랑인’ 시설이었던 ‘영화숙·재생원’을 비롯하여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진실화해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산시도 적극 나서야 한다. 부산은 특히 피란도시였기에 ‘부랑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국가폭력을 일삼은 시설이 여러 군데 있었다. 부산이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연로한 피해생존자들이 살아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진상규명 해야 한다.

고독사와 무연사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또한 평균 1,400만원에 이르는 장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가족의 장례를 포기하는 일도 많이 늘고 있다. 그런데 부산시의 공영장례 예산은 공영장례 대상자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공영장례 예산 및 제도의 현실화로 ‘애도할 권리’, ‘애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10월 17일 빈곤철폐의날을 앞두고 오늘부터 불평등과 빈곤을 철폐하라고 외치는 집회를 열고, 공개적인 토론을 하고자 한다. 빈곤은, 빈곤한 자 스스로 조직하여 목소리를 낼 때 철폐할 수 있다. ‘악’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도처에서 죽어가는 빈곤층의 목소리를 드러내자. 그리고 우리의 뒀을 찾자.

기초생활은 권리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고, 의료급여 개악 철회하라!
공영장례는 기본권이다! 존엄한 죽음과 ‘애도할, 애도받을 권리’ 보장하라!
영화숙·재생원과 수용시설 피해 문제 진상을 규명하라!
대연우암공동체 주거생존권 보장하라!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세입자 권리 강화하라!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 아픈 것이 두렵지 않도록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2025 1017빈곤철폐의날 부산조직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017 빈곤철폐의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17 빈곤철폐의날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개악 철회!
- 존엄한 죽음과 '애도할, 애도 받을 권리' 보장!
- 영화속 · 재생원과 수용시설 피해 문제 진상규명!
- 대연우암공동체 주거생존권 보장!
- 세입자 권리 강화! 의료 공공성 강화!
- 불안정 노동 철폐! 기후정의 실현!



기자회견 | 10월 16일(목)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



토론회 | 10월 27일(월) 저녁 7시, 유라시아플랫폼 109호



사진: 이연승, 이인우
임성조, 전상규



결의대회 | 10월 17일(금) 저녁 7시, 주디스타화 앞



2025년 1017빈곤철폐의날 부산조직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건강사회복지연대 내미마을 노동당부산시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부산지회 대연우암공동체 두드림비전베이커 민주노동부산본부 법률사무소시소 부산경남울산영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노년병변장애인권협회 부산빈곤센터 부산인권플랫폼피랑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산주민운동교육원 비주류사자관 영화속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유등대동지정신계승사업회 이주민과함께 전국민주일반노조부산본부 정의당부산시당 [후원]강찬주 김동혁 류지아 송복남 임정수 정의당성폭력피해자

공영장레 단편영화 제작과정

7월 후속모임에서 OT를 겸한 첫 강의가 있었고요, 이어 8월 20일, 28일, 상영회 참가신청▼
9월 10일 총 4번에 걸친 이연승 감독님의 영화제작에 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8월 28일에는 각자 써온 시놉시스를 설명하고, 투표를 통해 총 3편을 선정했어요!
9월 10일에는 시나리오 초고를 검토하고 곧바로 배우, 장소 섭외에 돌입했습니다.
팀별로 연휴 기간에 또는 연휴 이후에 대본리딩과 촬영을 마무리했고 편집과
막바지 후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11/5 기준). 12월 4일, 달품콘서트에서 영화상영회를 합니다.
놀라운 경험의 연속인데요 :) 노력의 결실, 꼭 함께 지켜봐 주세요!



25-3차 운영위



▲ 8월 21일, 텔레그램 화상채팅으로 운영위를 진행 했습니다.

가을소풍



사진: 이연승 님



◀ 9월 21일, 이기대 무장애길에 가을소풍을 갔습니다!

부산채비학교 &조문단 후속모임



▲ 9월 13일,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전승욱 이사님께서 조문단 심화교육 '부산채비학교'를 진행해 주셨고 이날 내용이 좋았기에 11월에 2차 강의를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호에^^).

내미는마을 &영화숙 협의회



▲ 임기현 활동가님이 영화숙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영장레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국가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있었고, 센터도 공동 주최한 과거사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 참석하셨습니다. 내미는마을 회원들은 10월 3일, 김정술 총무님 병문안 후에 명절 앞예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제8회 명절 맞이 장애·빈민 합동추모식

9월 23일, 영락공원 제2영락원에서 명절을 맞아 제8회 장애인민 합동추모식을 치렀습니다. 부산뇌병변장애인권협회, 내미는마을 등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 특히 이번엔 부산시민 공영장레 조문단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뜻깊었습니다.



손이헌 대표님

민주시민상 수상 축하합니다!

#서로 배우고_모두 성장한다



9월 6일 사회과학세미나 MT를 갔어요!

우포생태촌에서 1박하며 '마르크스가 쓴 편지' 책걸이~



10월 25일 대연우암공동체 주민하마당에서 손대표님이 상금을 여러 단체에 후원하시며 우리 센터에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22일 세미나에 이어~

10월 24일 왕승민 노무사님의 '5인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 특강!

8월 15~17일 길위에 M.T in 옥지도



#현장에서 힘을 모으고 연결한다



▲ 8월 27일, 서면시장 시노래문화제



▲ 9월 4일, 유기혁 열사 20주기 추모집회



10월 25일 대연우암공동체 주민하마당 ▶



이 연 승

9월 25일 저녁, 센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별도의 이름 표기가 없는 질문은 최고의 대표가 한 것입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상구 학장동에 살고있는 부산반빈곤센터 회원 이연승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는 뭐 특별히 정해진 일을 하지는 않고 원래 영화, 영상 쪽을 바탕으로 문화 기획이나 공연 기획, 연출 그리고 영상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장동 '세이브트리'라는 생활 문화 공간에서 문화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 운동과 개인적으로는 '학장서림'이라는 작은 헌책방을 하나 하고 있고, 조그마한 야산에 밭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연농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세이브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모르는 분들 위해서.

원래 목공 공방으로 시작했고 제가 한 5년 전부터 합류하면서 공방은 공방대로 운영이 되고 또 그 지역 기반의 문화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해보자고 해서, 백부현 대표님과 함께 꾸며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이브트리' 자체가 회원제는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각각 독서모임, 영화모임 그리고 목공수업 등 '세이브트리' 안에 있는 동아리라고 봐야겠죠. 그 동아리마다의 회원이 있는 겁니다. 이주 전 1년 정도 참석했었고요.

처음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구포나루 축제 중 사운드 피크닉이라는 무대 기획팀에 제가 있었고, 백부현 씨는 장작구이 체험공간에서 나무와 장작불을 담당하는 친구였어요. 행사 끝나고 열댓 명이 모여서 '세이브트리'에서 뒷풀이를 했던 거죠. 그 뒤로도 한두 번씩 더 놀러 다니다가 "야,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다,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된 거지요. 우리가 처음 시작한 사업이 그 동네의 폐가를 활용해서 작은 식물원 만들기였어요. 지금은 사운드 피크닉이라는 이름의, 마을활동가와 문화예술인들이 모인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학장동에서 사는 건 어떠세요?

일단 제가 사는 곳이 구치소 바로 옆 동네라서 개발도 안 되고 있고 조용해서 일단 너무 좋고요. 조금 방치된 면이 있지만 그럴수록 사실은 문화운동을 하기는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 아주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뭐 일단 독거인이고, 더 싸고 환경이 좋은 데를 찾고 있었죠. 당시에 흰여울문화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워낙 관광지로 이름을 떨치다 보니까 좀 살기가 힘들었어요. 집 앞으로 관광객들이 엄청 다녔거든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동네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던 와중에 마침 좋은 방이 나와서 이주도 하고 좀 더 본격적으로 '세이브트리' 활동을 하게 됐죠.

근데 현여울 들어가신 것도 문화 활동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 그 이전에는 양산 서창에 살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일이 많은데 멀었죠. 처음엔 그냥 일을 안 하고 좀 숨어 살려고 들어갔는데 먹고 살자니 일을 안할 수는 없고, 결국 부산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3~4시간 걸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당시 현여울의 심종석 대표님이 좋은 집이 나왔다고 소개를 해 주셨었죠. 멋진 바다뷰가 있는 곳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들어가고 한 6개월 후부터 관광객이 엄청 많아지고 카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됐었어요.

(원석)책방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학장서림'이라는 독서 모임을 4년째 하고 있거든요. '세이브트리'에 노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활용을 잘 해보자' 이런 와중에, 이 작은방에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차피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 모임 이름도 학장서림이니까 그 이름의 헌책방을 한번 마련하자 그렇게 됐죠. 무인 점포로 운영을 하면 되니까 올해 4월 달부터 하게 됐어요.

오늘 '퐁네프의 연인들'이라는 영화를 같이 보고 오는 길인데요. 이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레오 까락스' 감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유럽 감독 중에는 제일 좋아하고, 이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나쁜 피', '소년 소녀를 만나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생각을 했거든요. 어린 마음에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혹시 지금도 이런 영화를 찍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지금도 영화에 대한 꿈은 놓지 않은 상태고, 오히려 어릴 때는 상업 영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내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더더욱 찍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민수) 최초로 영화감독을 꿈꾸게 된 계기나 사건이 있었을까요?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그때부터 조금 자유로운 삶을 원했어요.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맨날 야간 자율 학습하고, 대학이 중요하고... 저는 그게 싫어서 인문계를 안 갔고 부산공고를 갔는데, 근데 고2 때 공업 계열도 제 체질에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별다른 꿈이 없었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EBS 독립영화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하게 접했는데 거기서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 어떤 단편영화를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와, 무슨 이런 영화가 다 있지' 이게 독립 영화인가, 예술 영화인가 하면서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장전동 쪽에 '시네마테크 1/24'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 영화들, 고전 영화들을 찾아봤죠. 책에 나오는 영화 이런 거를 찾아보다가 마침 그때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딱 시작할 때였죠. 96년도, 제가 고3 때죠. 고3 때 그래서 영화제도 보니까 이런 세상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 키드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그래서 그때는 하루에 다섯 편씩 막 봤죠. 97년도에 대학 진학을 해야하는데 아예 입시는 생각도 안 했고 수능도 안봤고, 부산 영화제를 만나니까 영화과를 가고 싶게 된 거예요. '저런 영화를 찍는 그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했었고. 그 당시에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프로그래머가 김지석 선생님이었어요. 수석 프로그래머로 계시다가 몇 해 전에 간느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부산예술학교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당시 김지석 선생님이 그 학교 교수로 있었어요. 수능 점수를 안 보는

학교였고 전문대 인정을 해주는 그냥 아카데미였는데 제가 군대 갔다와서는 전문대 인가가 났고요. 내신이랑 실기만 보는데 김지석 선생님도 계시고, 그 외 강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뽕뽕했어요. 그래서 다니게 됐어요. 그때 처음 단편영화를 찍어봤죠.

우리가 이제 공영장례를 주제로 단편영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단편영화를 통해서 영화감독의 꿈을 최초로 키우기 시작한 감독님이 생각할 때 단편 영화의 묘미는 어떤 건가요?

일단은 다들 영화를 아시는 분은 아실텐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담아야 되는 장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함축적이고 은유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시를 좋아하는 것도, 시가 그런 점이 비슷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도 쓰시잖아요?

최고의 예술을 꼽으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시와 춤을 꼽거든요. 시인으로서 쓰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써보는 거죠. 제가 형식적인 영화를 또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 것처럼 시조 쓰는 거를 좀 배워보기도 했고 즐겨 쓰고 있고요. 매일 쓰지는 않고... 매일 하는 거는 따로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처음 하는 게 시를 필사를 한 편씩 하기는 해요. 노트에 매일 한 편씩, 커피를 마시거나 주스를 마실 때 필사를 꼭 합니다. 꼭 시를 쓰기 위한 건 아니고 영화도 시나리오를 적어야 하는데 나이 들면서 글빨이 조금씩 사라지잖아요. 그 거를 좀 지키기 위해서 써보고 있습니다.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는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과연 무엇일까 제가 연구를 했을 때, 그 특별함은 움직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움직이는 거를 가장 잘 표현한 예술이 무용이랑 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는 운율이 있고, 무용은 원초적인 움직임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찾다가 제가 이제 공연 예술 쪽으로 빠져서 무용 쪽의 무대감독, 기획을 한 12년 정도 했어요. 영화를 안 하고.

경희댄스시어터에서도 활동하시고 몇 달 전에 무용공연 촬영 차 남미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브라질에 전국을 돌면서 하는 춤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에 초청받은 팀의 영상 기록차 갔다 왔습니다. 무대 감독, 공연 기획, 연출 이런 쪽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영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쪽은 좀 손을 뗐어요. 학생들 들어갈 때쯤이에요. 조금 피로감이 있었고요. 그 공연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한테 뭔가 보상이 되는 건 좀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제 작품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작품을 또 하고 싶었죠. 제 작품에 대한 갈망이 점점 쌓여감으로써 그렇게 된 거죠. 공연 쪽 일은 오래 했다 싶었고, 또 영화를 다시 해야겠다...

잘 됐네요. 구상하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세이브 트리'의 친구가 쓰는 주운 기타를 주인공으로, 오랜만에 하는 영화니까 몸 풀듯이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마침 반응이 좋아서 제천국제영화제에 나가게 됐어요(QR 스캔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좀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해보자 하고 있는 게 또 5년 짜입니다. 구상한 거는 많은데 아무래도 상황이, 제작비도 있어야 되고 또 썩 마음에 안 드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또 다른 소재가 생각나면 다른 쪽으로 또 빠지고 뭐 이렇다 보니까... 원래 현여울마을을 배경으로 찍고 싶었는데 이제 찍을 수 없게 됐죠. 너무 관광지가 돼 버렸고.



영화보기 ▼
bit.ly/특이점

그럼 시나리오도 직접 쓰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뭐 혼자 작업을 해야 돈이 많이 안 들고 하다 보니까.

감독님 뭐 시도 쓰고 이제 영화도 다시 찍으실 거고 무대 기획이나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계속해 오시는 건데 어떤 게 영감을 주는 건가요? 창작을 할 때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제일 큰 거는 일상의 경험이고요.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대단한 영화를 할 시기는 이제 지났고, 영화든 공연이든 전시든 어쨌든 가리지 않고 내 경험에서 나오는 창작을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문학이 될 수도 있고 시각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나누는 시대도 이제 지난 것 같고요, 마침. 저는 오히려 어릴 때 영화만 할 때보다는 제가 원하는 판이, 세상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융합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나?

네,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면서 그런 거를 어떤 예술 작품으로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센터도 만나게 된 거죠. 사회적인 문제를 영화로 풀 나이드 됐고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나도 이제...

원래는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었죠.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고.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살고 쓸쓸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공영장례’를 딱 만나게 된 거죠. 이것도 다큐로 한번 찍어보면 너무 좋겠다 해서 그 모니터링단에 처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신호숙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엄궁 통통길 도시재생 대학’에 제가 사진 찍으러 갔었는데 임기헌 선생님 강사로 오셔서 가지고 알게 됐고요.

영화 찍는다는 목적 어디 갔습니까? 공영장례나 1인가구 문제에 대해 재치 있게 아이디어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목적은 우리 지금 단편영화 제작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뤄주고 있는데 저도 만들 생각은 있어요. 기회가 되면 저도 해볼 생각이예요. 약간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2023년 1기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으로 오시게 됐는데 조문단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사건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모니터링단 할 때처럼 조문을 많이 다니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는 조문단 분들이 그 자체가 너무 좋고요. 기억에 남는다가보다... 현장에서 뭐 안 좋은 모습들도 많이 봤는데 그거는 기억하고 싶은 모습은 아니어서요. 그 외에 다들 비슷할 건데 은하수 님 돌아가셨을 때 그게 기억에 남네요. 그게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사실.

그때 메리놀장례식장에 저랑 같이 가서 지인 두 분을 만났던 거잖아요.

촬영하려고 그때 카메라 들고 갔었는데 촬영을 못했죠. 막 울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어쨌든 모니터링단 하면서 처음 만든 영상에 그 은하수 님의 얘기가 들어갔죠. 봉안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 그때 원석님도 같이 갔었죠.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제2영락원 앞 나무 아래에서 마지막에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했었죠.

(민수) 확장천 걷기를 좋아하던데요. 걷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걷기를 참 많이 하긴 해요. 제가 그리고 차도 없는 이유, 걷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차가 없습니다. 카셰어링 요즘 잘 돼 있고 술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사실 탈 일이 별로 없고... 걷기는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뭔가 남는 활동이지 않나. 몸도, 정신도 건강할 수가 있고 끝내고 나면 다음 창작을 할 때 도움이 되고요. 잡생각이 많은 일상에서는 사실 창작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걷기를 통해서 창작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내 몸에.

(민수) 걷기를 통해서... 칸트처럼.

그분은 완벽한 루틴이 있었잖아요. 저는 루틴은 안 만드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루틴이 있잖아요.

오전 루틴이 있긴 해요. 걷기는 저녁에 많이 하는 편이고, 오전은 커피 갈아서 내려 마시고 웬만하면 일을 안 한다는 주의예요. 나에 대한 특권이죠. 육체파 백수 지식인이 할 수 있는. 남들 일하고 출근 때문에 바빠서 막 그렇지만, 저는 적게 버는 대신 그 특권을 누리겠다고 생각한 거죠.

(민수) 현대인의 바쁜 생활에 어떤 저항하는 측면도 있네요.

현재 프리랜서시니까 남들이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하고 정해진 일과가 있고 이런 거에 비해서 불안감은 없으세요?

그 불안감이 있으면 못하죠. 아주 만족을 하고 있고요. 물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조금하거나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았습시다. 저는 어쨌든 영화를 처음에 선택한 것도, 무용 공연 쪽으로 한 것도 그렇고 다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습시다.

요즘에 뭐 관심사는 뭐가 있습니까? 영화는 당연히, 이미 얘기하셨으니까 일단 영화 제외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최선의 쾌락을 위해서 이 자잘한 쾌락들은 아예 금욕을 해 버리는 게 진정한 쾌락주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되게 개인주의적인 면도 있고요, 살다 보니까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됐죠. 그런 쾌락을 위해서는 또 사회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 사회가 받쳐줘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사회가 좋으면 쾌락이 아주 건전한 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센터에 와서 '장애감' 같은 것도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장애감을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텐데 어떤 '장애감'이 있으세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저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다는 장애감. 왜냐하면 진짜 돈 없을 때 있거든요. 저는 저축을 안 하니까 없을 때는 진짜 없어요. 지금은 체력이 달라다 보니까 돈 쓸 일이 많이 줄었어요. 술을 덜 먹으니까 돈이 좀 남죠. 오히려 환경이 좋아진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 만나기 전에 술을 더 많이 먹었어요?

매일 먹었죠. 365일 중에 한 350일. 30대까지만 해도 경성대 앞에 친구 가게에 가면 아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때는 논다고 창작을 못 했죠. 이제는 체력이나 시간적으로 개인 창작을 할 수 있는 때가 됐구나 생각이 드는 거고. 원래 술보단 술자리를 좋아했는데 혼술을 하면서 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됐죠. 결국은 내 입맛에 맞으면 제일 좋은 거고, 뭐 위스키도 한번 유튜브 찾아보고, 섞어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영산 줄 당기기, 같이 간 적 있잖아요. 그건 언제 처음 가신 거예요?

그거는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부산예술학교를 갔었고 연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연출하는 머리가 부족한 것 같아 공부를 더 하려는데 뭐가 부족한가 보니까, 영화는 이미 다 배웠고 철학이 없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유명 감독들은 영화와 아니고 다른 전공들이 많거든요. 예술은 철학에서 시작이 되니까 개론서를 읽다가 재밌어서 경성대 철학과를 갑니다.

교수님들이 서울대 미학과 출신도 있고 또 한 분은 영화제 집행위원이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잘 만났죠. 철학과를 나오니까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경성대 연극영화과 수업도 들었거든요. 시간강사 해볼까, 애들 가르치고 영화도 찍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대학 다녔는데 졸업 후에 같이 사니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 여행사 부산지점에 취직을 해서 한 2년 했어요. 여행을 갈 수 있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남들 보내주기만 하고 여행은 못갔죠. 포토샵이나 이런 편집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으니까 이 사장님이 여행업을 하면서 중국 보따리상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 상품 이미지를 올려 주는 일도 했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 싶어서 부산대학교에 대학원에 원서를 넣었죠. 마침 그때 또 부산대학교에 예술문화 영상학 대학원이 생긴 거예요. 영상학, 미학, 예술 경영 이 세 과정을 여러 과 교수들이 협동과정으로 만든 거예요. 미학 쪽 배우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덜컥 또 된 거죠. 제가 대학원 가야해서 그만둔다고 하니 그때 사장님이 첫 해외여행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중국 하이난에 29만 9천 원짜리 패키지였는데 손님들 데리고 처음 갔어요.

대학원 논문 주제는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다 빠니까 ‘움직임’이더라고요. 미학과니까 무용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짧고 푸른 춤꾼 한마당’이라는 기획을 하는 선배님이 계셨는데 ‘내가 구경시켜 줄 테니까 니 무대감독 해라’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년 무대 감독으로 일을 한 거예요.

질문이 뭐였냐면, 영산 줄 당기기를 어떻게 알게됐고 가게됐냐는 거였어요.

미학 파트에 채희완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학생들과 버스 대절해서 영산 줄당기기를 매년 보러 가는 거예요. 저는 전공이 영상학이었지만 미학 쪽에서도 많이 놀았죠. 대학원 가서 기자재 조교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됐죠.

가서 진짜 놀랐거든요. 일본은 작은 마을 축제들이 몇백 년 된 게 엄청 활발하게 잘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왜 없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 끝내주는 거죠. 주변에 항상 추천을 했죠. 그전엔 우리나라 해안에 남아있는 별신굿, 그런 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한국 문화라고 생각을 했었죠.

제가 지금까지 본 축제랑은 전혀 다르게 사람들의 열정도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른 거예요. 단순히 전통 문화나 놀이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신명난다’ 그 자체.

저도 같은 생각이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가면 술도 큰 양동이에서 마음대로 퍼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 행진과 악이 더해지니까 완전히 엑스터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술 취해서 밤새도록 놀아버렸죠.

축제의 원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이 한국 사회에 축제가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관 주도로 되다 보니까 많이 형식적으로 변했죠. 인기 쫓아가고... 일제 때 민족말살 그런 정책과도 연관이 있고요. 영산은 3.1 문화제라는 걸로 하잖아요. 독립운동가, 6.25 참전용사, 의병 다 있어요, 그 동네에. 만년교 뒤에 추모비가 있습니다. 만년교도 되게 멋있습디다.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어요? 딱히 음식을 즐기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건 제철 음식이죠. 봄에는 미더덕회, 여름엔 목포 민어, 겨울에 굴이나 과메기를 먹는단가. 또 제가 자연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나는 걸 바로바로 먹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봄에는 우리 '세이프 트리'에도 어마어마하게 봄나물이 많이 나거든요.

제가 2월에 아름다운재단 공모사업 신청서 쓰면서 단편영화 같이 만들자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일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도중에 이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쉬운 과정이 아닐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 아니면 도잖아요. 영화에 완전 빠져가지고 집 한 채 날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완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지금까지는 참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잘 따라와 주신 것 같아요.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비슷한 걸 하는데 기존의 감독들이 거의 다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그렇지도 않은데 알아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열정도 넘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하고 계신 거죠.

13편이나 시놉시스를 써 오셨고 3편이 뽑혔고 이제 팀도 다 다행히 나뉘지고 역할도 배분되고 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원래 사람 대하는 게 힘든데 워낙 개성 있는 사람들이 또 모여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을 잘 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영화 교육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애들을 싫어합니다. 고등학생은 자기 주장도 강하고... 좀 힘들었고 학생들은 나랑 안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시민들, 마을 기록 이런 걸로 해본 적은 있어요. 그건 좋았어요. 자발성도 있고 서로 상대를 존중하니까. 우려도 있지만 이제 내 손을 떠났고 팀들이 만드셔야 하니까. 저는 크게 도움 드릴 게 없고, 그분들의 도전을 저는 응원하는 것밖에 없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센터 회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센터는 저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많이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혼자였으면 이렇게 다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곁할기로, 그냥 소재로만 이용을 했겠죠. 처음엔 소재로 접근했지만 점차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회과학 세미나를 통해서 마르크스도 배웠고, 그가 말하듯이 '철학자들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해 왔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술이 사회문제를 소재만 끌어 써서 대중들한테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행동과 실천이 있을 때에 내 작품도 진실성이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로베르 브레송이라는 감독의 <시네마토그래프에 대한 단상>에 보면 "꾸밈 없는 현실은 진실로 통한다"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어서 항상 카톡에도 써놨거든요.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 센터를 만나서 너무 즐겁고 반갑습니다. <정리 : 최고운>

영화 '미세리코르디아'를 통해 회의해 보는 우리 세계의 죄와 벌

『미세리코르디아』, 알랭 기로디, 2024



주의 본 글에는 영화내용에 관한 프로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좋은 예술의 역할은 무엇일까? 최근에 본 한 편의 기묘한 영화는 나로 하여금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자아냈다. 좋은 예술의 역할을 질문하게 된 것은, 영화를 보고 영화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왠지 좋은 영화를 봤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영화라는 장르의 미학적 성취를 가늠할 역량이 없는 나는 내 감상에 대한 질문을 영화를 넘어 예술로 확장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영화는 '공감'은 고사하고 충격으로 일관된 영화였음에도 그 여운이 강하게 오래 남았는데, 떠나지 않는 여운은 나로 하여금 '좋은 영화'라고 평하게 된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 그 여운의 정체는 무엇일까?

주인공 제레미가 장례식을 위해 작은 시골마을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영화는 관객들이 인물들의 관계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미묘한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살인사건 이후 우리의 통념을 뒤흔드는 방식의 전개와 결말을 통해 관객은 '이게 뭐지?'하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질문을 붙들고 생각 속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

영화를 보고 오래 남았던 그 여운의 정체는 바로 그 질문, 답도 없는 끈질긴 질문이다. 제레미는 빵집 사장(거기서 빵을 배웠는지 일했는지, 제레미가 지금도 빵 관련 일을 한다고 잠깐 언급된다)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그 집에 방문하는데, 빵집 사장은 죽고 그의 부인(마르틴)이 혼자 집을 지킨다. 장례식을 치른 다음 마르틴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 - 마르틴과 그의 아들 뱅상, 왈테르(뱅상과 제레미의 친구), 마을 신부님이 돌아가고 마르틴의 요청으로 하루 더 머물기로 한 제레미와 마르틴은 앨범을 보며 망자를 추모한다. 앨범을 보며 제레미가 마르틴의 남편인 망자를 '사랑'했었음을 드러내는데 그러한 사실은 애초부터 알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마르틴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마르틴은 빵집을 제레미가 인수해 주면 좋을 것이라 제안하는데, 제레미는 확답하지는 않는다. 마르틴의 집에 조금 더 머물기로 한 제레미는 딱히 친하지도 않았던 옛친구 왈테르를 방문하고 그를 향한 자신의 욕망(성적)을 드러내서 왈테르를 당황케 한다.

제레미와 마르틴(뱅상의 어머니)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까 염려스러운 뱅상은 제레미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제레미는 뱅상을 죽이게 된다. 놀란 제레미는 뱅상의 시체를 사건 장소인 숲에 묻는다.

이후 뱅상의 실종을 다들 걱정하는 가운데, 마을 신부님은 고해실에서 제레미에게 살인자를 고발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혼란과 죄책감에 싸인 제레미가 죽으려 하자 '당신의 죽음으로 죽은 뱅상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고 하면서 신부님은 제레미에게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제레미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관능의 대상이 되어달라는 것이 아님) 것이라고 말한다.

이 영화에 대한 다른 독해들은 섬세한 차이점들은 제외하면 대체로 신부님을 제레미를 욕망하는 사람으로 보고, 제레미에 대한 욕망이 범죄자 제레미를 감싸고 도는 신부님 행위의 원인이라고 읽는다. 이런 독해는 대부분 알랭 기로디 감독의 전작들과의 연관 속에서 이 작품을 읽어내는 듯하다.

그러나 감독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나는 제레미에 대한 신부님의 욕망이 제레미를 법적 처벌로부터 보호했다고 읽지 않았다. 신부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질문하게 하는 존재로, 우리 세계에서 죄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떠한 원리 속에 구성되었는가 질문하는 존재로 읽힌다. 신부님은 제레미가 반사회적도 인물도 아닌데 그를 감옥에 가둠으로써 이 세계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물었다.

도식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규정하고 법에 따라 죄인을 감금하는 방식의 사회체계를 통해 사회전체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사회를 질서있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방편으로 작용하는 법과 그에 따른 죄의 처벌은 어찌면 사회적 이익은 없고 죄를 규정하고 죄인을 가두는데 드는 비용만 지불할 뿐이며, 오히려 인간이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자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인물들의 욕망을 중심에 두고 이 영화를 독해하는 것에도 공감되는 되기도 한다. 영화에서 인물들의 관계가 관능적 욕망의 미묘한 암시들로 가득차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그 관능적 욕망에서 성별은 무의미한 것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제레미는 여자친구가 있는 인물이고, 남자였던 빵집 주인을 사랑했으며, 혼자 사는 뚱뚱하고 매력없어 보이는 남자 월테르에게도 성적으로 다가간다. 또한 이 영화에서 관능성은 흔히 재현되는 관능성과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제레미가 뚱뚱한 월테르의 험령한 속옷을 입고 월테르의 가슴을 쓰다듬는 장면이 특히 그렇고, 다른 장면에서도 성애 장면을 전혀 노출하지 않으면서 인물의 눈길과 눈빛, 특정한 태도들을 통해 미묘하게 관능성을 풍기는 방식이 주도적이다.

제레미를 중심에 두고 인물들은 미묘한 관능적 욕망을 피워낸다. 뱅상은 제레미가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까 노심초사 제레미 주변을 맴돌지만, 뱅상의 제레미에 대한 태도에는 미묘한 성적 긴장이 감돈다. 마르틴의 제레미에 대한 친절한 태도는 아들의 친구 그 이상의 눈빛과 분위기를 풍긴다. 게다가 마르틴이 발기한 채 샤워하는 제레미가 있는 욕실에 무심한 듯 들어가는 장면은 기괴하다. 모성과 발기한 아들의 조우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 기괴함은 마르틴과 제레미가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한 평론가는 “자비는 종교도 윤리도 아닌 관능의 역량임을 드러내는 천진하고도 대담한 스릴러”¹⁾로 이 영화를 소개했다. 관능의 역량이 자비라는 그의 독해에도 공감이 된다. 인간의 자비는 정신적 행위라기보다 육체적 관능으로부터 발현된다는 독해는 깊은 설득력을 지닌다. 그렇기에 자비는 불특정 인간이 불특정 인간에게 베푸는 것이 될 수 없고 몸과 몸의 관계성 즉 구체적 관계 속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인간의 태도라 볼 수 있다. 나와 구체적으로 관련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는 의미를 가질 수도 또 가능하지도 않을 수 있다.

관능과 욕망, 죄와 처벌, 관능과 자비 뿐 아니라 이 영화는 가을 숲에서 버섯을 따내고 헤매고 다니며 관능을 추구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제레미를 통해 인간 존재의 근본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다. 천진한 어린 아이 같은 제레미. 주변사람들에게 무척대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능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제레미.

그가 은유하는 것은 무엇일까? 영화를 본 후 찾아보니 알랭 기로디 감독은 프랑스 영화계 인사들에게 주목받는, 인정받는 감독으로 전작 영화들을 통해 기발함과 기괴함을 보여준 감독이었다. 그의 기발함과 기괴함은 우리로 하여금 간단없는²⁾ 질문을 일으킨다. 내가 지녔던 생각과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촉발한 이 영화는 나에게 좋은 영화였다. 나에게 좋은 예술은 바로 당연한 나의 사유와 나의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김남영 회원>

1) 유운성 평론가.

2) 잇달아 계속되어 끊이지 않다

일상의 작은 일에 감사하는 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박민희 부위원장님이 1017 빈곤철폐의날 부산 결의대회에서 한 발언을 옮깁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당한지 벌써 3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한다는 말,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그래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가 되겠구나’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전세사기의 수법과 유형은 너무나 다양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 금액의 일부분만을 구제해 줄 뿐입니다. 특히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공동담보라는 사각지대에 내몰려 그나마 지원하는 정책에서마저 소외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에서 나타나는 공동담보 피해 유형은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특별법 상 어떠한 유효한 피해 구제도 받지 못합니다. 피해자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경매 종료를 기다리며 그 기간동안의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등 주거에 필요한 적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전세대출금을 전부 갚아야 한다니요. 일각에서는 경매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 중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 정책은 아직 시작도, 진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3년 째가 되어가는 지금, 아직도 저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주거비도 계속 지출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희생자들 중에는 주거비와 대출 이자를 부담하지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다가 과로하여 사망한 분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의 위험을 피부로 느끼며 파산 및 회생을 선택합니다.

사기를 친 사람은 평평거리며 잘 살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죽고 파산하고, 건강마저 잃는 지금 상황이 정녕 2025년의 현실이 맞는 건가요.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 정책 실패와 이를 악용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부동산 투자라는 이름의 돈놀음에 놀아나면서 돈과 집, 미래와 건강도 다 뺏겨야 합니까? 그저 집을 살 돈이 모자라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좀 더 돈 모아서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해왔던 선택이 투기꾼들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꼴이 되는걸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현재 한국의 임대차 제도는 임대인들의 투기 수단일 뿐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도 안전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전세제도, 임대차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 같은 슬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피해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봤자, 또 전세사기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전세사기 문제, 임대차 제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고 일상의 작은 일들에 감사하는 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디 주거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만 발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희 님>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큰 파도가 됩시다

기후위기에 맞서는 조은혜 님이 927부산경남기후정의행진에서 한 발언을 옮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 환경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화장실 불이 하루종일 켜져 있는 것이 싫어, 종이 울리기 전 잼싸게 복도로 나가 불을 끄고 오고, 급식을 먹을 때면 최대한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행동들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대한민국의 남쪽에서 태어나 삼시세끼 굶지 않고 풍족하게 지내고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깨끗한 물, 전기, 에너지가 없어 열악한 생활을 이어가는 이웃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이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땐 지구온난화, 지금은 기후위기로 불리는 이 사태와 더불어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를 마주하는 저의 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면하기 어려운 거대한 문제들을 외면하기보다, 작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물티슈를 쓰지 않는 것,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 가능한 만큼 채식 식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일선에서 투쟁하는 이들과 함께 싸우고 연대하는 것.

어렵다면 어렵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리 엄청난 일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면 체념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한다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서로를 감각하고 이어간다면 그 목소리는 크고 높게 퍼져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큰 파도가 될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의 가뭄, 산불, 홍수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자연과 비인간 생명, 장애인, 노동자,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은 모두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한다면, 언젠가 우리도 외면당할 것입니다.

또 하나,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그리기 어려운 청년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세상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이라는 텅 빈 선전이 아닌, 진정으로 즐겁게 어울리고, 여유롭게 일하며, 무엇이든 꿈꿀 수 있는 삶터입니다. 그 속에서야 우리는 스스로와 서로를 돌보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정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천문학적인 건설비를 들여 깊은 바다를 매립해 철새 도래지와 가까운 곳에 공항을 짓는 것이 지역을 위한 일이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십시오.

너무 멀고, 너무 크고, 너무 오래 지속되는 문제를 개인이 혼자 마주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환하게 웃으며 즐겁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우리 힘을 잃지 맙시다. <조은혜 님>

초량전통시장

‘어딜 여행 가서 맛집을 찾으려면 어디를 가야할까요?’ 라는 질문을 필자는 자주 받는다. 맛집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게 있겠거니 하며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전혀 생소한 지역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종종 이런 답을 제시한다. “거기 재래시장을 가 보세요”.

재래시장 또는 전통시장이란 곳들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장사한 구력이 뛰어나고, 또 거기서 버티려면 실력이 남달라야 진입이 가능한, 진정한 맛집들의 각축장이라 볼 수 있다.



우리네 고장 부산에도 여러 시장들이 있지만 그중에도 특히 초량전통시장을 주목해보자.

원래 조선시대부터 성행했던 시장은 동래읍성을 중심으로 한 동래시장이나 수영시장 등의 다섯 군데 시장이 이 지역의 중심 장터였다. 하지만 1876년 일본의 압력에 의해 최초의 현대식 항인 부산항이 개항된 이후로는 상권의 이동이 시작됐다. 초량왜관을 중심으로 그 주변이 점점 상권의 중심지가 되어버리게 된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서는 초량전통시장은 일본과 한국의 무역중심지가 되어버렸다. 초량왜관은 지금으로 치면 상공회의소, 일본대사관과 국제무역센터 같은 성격의 복합적 공간이 되었고, 부산 문화도 거기를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오늘은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회의 방진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협의회 손대표님, 반빈곤센터 최고운 대표님과 같이 식사하자는 연락이었다. 이에, 공간달품에서 공영장례 영화를 편집하던 최종봉 감독님과 이연승 감독님까지 합세해서 점심 잔치(?)를 기획했다.

장소는 영화숙협의회 회원 분들이 자주 밥을 먹는 곳, “별교식당”. 여기는 시락국과 짜장면을 동시에 파는 집이다.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서민적인 식사 1순위를 모두 모아놓았다. 모르긴 몰라도 두 메뉴를 동시에 파는 전국 최초의 집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락국밥은 큰 우동그릇에 시락국과 밥이 담겨져 나온다. 짜장면 역시 큰 그릇에 가득 담겨서 나온다. 양은 무조건 많다. 그리고 가격은 둘 다 4천원이다. 그릇 크기와 가격표만 보고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시락국을 먼저 한 숟갈 떠봤다. ‘그래! 이게 바로 시락국이지!’ 먹자마자 속으로 편안하게 들어가야 그게 바로 시락국이지... 이걸 해장국의 개념을 넘어 속 뿐만 아니라 마음 아픈 사람의 상처까지 어루만져주는 소울푸드의 개념으로 정리해야 한다. 예전에 서울 가서 이상한 시락국 체인점에서 느꼈던 그 불편함과과는 정반대의 맛이였다.

이제 짜장면을 떠서 먹어보자. 예상했지만, 어른들이 드시기 좋은 약간 퍼진 면발이다. 근데

이 맛 어딘가에서 진한 부드러움이 느껴진다. 한 젓가락 떠서 먹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을 타고 넘어간다. 이에 손대표님이 짜장면 품평을 하신다. 이걸 옛날 옛적에 짜장면이 처음 대중에 소개될 때의 맛이라고 정의하신다. 원래 춘장은 이렇게 연한 갈색에 맛이 부드러워 속에 부대낌이 없어야 하는데, 요즘 일관된 맛인 공장 생산 춘장은 색만 검고 맛이 별로라서 여기와는 다르다는 견해다. 아마 직접 장을 담아서 조리할 것으로 조심스레 추측하셨다.

여기서는 뭐든 옛날로 돌아가고, 어떤 것이든 원형을 느낄 수 있어 좋다.

먹는 내내 영화속협의회 방 사무국장님의 맛있다는 소리가 들렸고, 다들 신이 난 표정이었다. 밥을 여럿이 먹고, 시장에 가서 음식을 정겹게 나누는 순간이 너무 뜻깊었다. 이 자리를 주선한 방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다.

원래 시락국이란 이름은 시래깃국의 경상도 방언으로, 무청시래기를 모아서 멸치육수에 된장을 풀어서 끓이는 국을 말한다. 지금이야 풍토가 달라졌지만, 예전에 가을날 채소 가게 앞을 지나가면 잘라서 옆에 버리듯이 쌓아놓은 무청이 밭에 밟힐 지경이었고, 그걸 주워 끓이는 게 시초였다. 쓰레기에서 파생된 말이라고도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가장 친서민적인 국을 선정하라면 경상도에선 시락국이 1순위가 아닐까 한다. 거기다 면 요리중 가장 서민적인 짜장면까지 합쳐졌으니, 음식 이름만으로도 서민들의 팍팍해진 속이 달래질 지경이다. 거기다 한 그릇에 4천원이고 양은 다른 곳의 두 배다. 그리고 마음은 세 배로 따뜻해진다.

여기 가게 이름이 왜 별교식당이나 물으니 주인이 전라도 쪽 태생이라 그렇단다. 역시 그 동네 사람들의 음식은 늘 담백하면서도 재미를 잃지 않는다. 가게를 이곳에 연지 2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오래 장사한 말투로 느껴지진 않는다. 근데 참 정감이 있어보였다.

나오며 보이는 큰 솔단지에 시락국과 선지국이 동시에 끓고 있었다. 저 국들이 계속 끓는다면, 서민들의 겨울이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다. <김민수 운영위원>

별교식당(부산 동구 초량로13번길 22)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소비름 독자퀴즈★

시래깃국의 경상도 방언은 무엇일까요?

010-5135-7957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장애·빈민 명절맞이 합동 추모식에 다녀왔습니다.

긴 시간 명맥이 유지되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꾸준히 이 시간까지 지켜오심에 선배님들께 다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에서 성명만 들었던 분들의 불안함을 직접 보니 울컥했습니다. 지하다보니 퀴퀴한 냄새가 나고 봉안당 들어가는 입구는 매우 좁았고 물이 고여 이끼도 끼여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서 밝은 햇빛이 비추는 곳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제수음식을 풍성히 준비해서 차례상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최고운 대표님, 임기현 활동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함께 차례 지내러 오신 선생님들도, 조문단 선생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문단 박미정 님>



▲ 제일 오른쪽 박미정 님

반빈곤센터 식구들, 영화속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손석주 대표님과 황송환 피해자분과 함께한 이기대 가을소풍.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있어도 좋았고, 변호사님의 두 자녀들의 맑고 고운 미소만 보아도 좋았습니다. 선화언니가 만든 김밥이 최고로 맛있었고 하늘은 높았고 담백한 구름과 시원한 바닷바람 “딱 좋아!”였네요.

모두들 웃고 있고 즐거웠고 이런 게 행복인 거라고 저 자신에게 또 한번 속삭여 주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가슴 뻥 뚫어지게,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 안들게 잠깐이나마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느낍니다.

송환 어르신은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너무도 슬퍼 사실 씩 즐겁진 않았지만 애써 나에게 최면을 걸며 ‘너라도 행복해’라며 주문을 걸어야만 했네요. 남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것도 어떠한 ‘나다움’의 영역이지만 내 마음챙김도 중한 것을 몸이 아프고 나서 알아갑니다.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기쁨인지! 그러나 그 속에 두려움도 외로움도 늘 꿈틀대고 있으니, 스스로 ‘알아챌’을 배워가야겠다 또 생각해 봅니다.

기분 좋은 가을소풍, 반빈곤 회원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방진숙 회원>

왼쪽에서 세 번째 방진숙 님▶



바닷가, 가을소풍

이연승

바람이 먼저 도착해
구름을 데리고 바다 위에 앉아
서두르지 말라고 말하고
파도는 세차게 지난 세월을 씻어낸다

소풍은 그렇게 쉼표를 찾는다

,

바람은 바다와
구름의 무게를 함께 들어 올리고
파도는 끝없이 일곱박자의 노랫 들려준다

* 9월 21일 가을소풍 백일장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이연승 님의 시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현여울마을에 살던 시절, 수일에
걸쳐 찍었던 영도 앞바다 사진 모음입니다.



부산반빈곤센터 2025년 8월 ~ 10월 회계보고

			8월	9월	10월	
수입	이월금	이월금	157,999	1,602,111	1,766,267	
	회비	현금	236500	196500	286500	
		CMS	1643110	1623440	1525640	
	후원금	후원금	180000	333000	1276000	
	재정사업	재정사업	0	0	200000	
	교육사업	교육사업	70000	40000	185000	
	기타수입	공공요금정산	59289	0	115316	
		기타수입	0	0	0	
공모사업	공모사업	0	0	0		
수입합계			2,346,898	3,795,051	5,354,723	
지출	야외비	임대료	사무실임대료	300000	300000	300000
		공공요금	공공요금	69370	58040	60910
		비품비	비품비	0	0	0
		소모품비	소모품비	0	0	0
		교육비	활동가교육비	0	0	0
		인건비	활동비	0	1000000	2800000
			보험료	16000	16000	16000
			상여금	0	0	0
			퇴직금적립	190300	190300	190300
		CMS사용료	CMS사용료	57517	55704	57992
	소 계			633,187	1,620,044	3,425,202
	사업비	연대사업비	분담금등	0	100000	84900
		선전인쇄비	소식지등	0	80640	0
		조직화사업비	조직화사업비	5600	178100	1470
		회원사업비	회원사업비	105000	50000	0
		회의비	회의비	0	0	0
		교육사업비	교육사업비	0	0	0
		재정사업비	달달한품앗이	0	0	39600
		출장비	출장비	1000	0	0
		은행수수료	은행수수료	0	0	2500
예비비		예비비	0	0	0	
공모사업비		공모사업비	0	0	0	
소 계			111,600	408,740	128,470	
지출합계			744,787	2,028,784	3,553,672	
잔액			1,602,111	1,766,267	1,801,051	

* 아름다운재단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별도회계로 처리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임기헌 활동가에게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부산반빈곤센터 활동일지

[8월]

- 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홍영식 님 조문(11시, 좋은 삼선병원장례식장)
- 11일 길위에 정기연습(19시, 달품)
- 13일 서면시장 집회 참석
- 15~17일 길위에 M.T(육지도)
- 20일 공영장레 단편영화 제작과정 2강(19시, 달품)
- 21일 25-3차 운영위원회(19시, 텔레그램화상채팅)
- 22일 사회과학세미나 : 마르크스가 쓴 편지(19시, 달품)
- 25일 공영장레 조문단 1~4기 후속모임(19시, 달품)
- 26일 길위에 정기연습(19시, 달품)
- 27일 서면시장 시노래문화제 참석 및 공연
- 28일 공영장레 단편영화 제작과정 3강(19시, 달품)

[9월]

- 4일 류기혁 열사 20주기 추모집회
(14시, 현대차본관정문 앞)
공영장레 조문단 5기 후속모임
: 이주연 변호사님의 유언 강의(19시, 달품)
- 5일 1017빈곤철폐의날조직위 기획회의(19시, 달품)
- 6일 사회과학세미나 M.T(우포생태촌 1박)
- 9일 빈곤사회연대 간담회(15:30, 달품)
- 10일 공영장레 단편영화 제작과정 4강(19시, 달품)
- 12일 공영장레 연구팀 회의(16시, 달품)
- 13일 부산채비학교(13시, 달품)
대연우암공동체 방문(20시)
- 15일 길위에 정기연습(19시, 달품)
- 16일 420부산투쟁연대 회의(4시, 함세상II센터)
편집팀 회의(19:30, 텔레그램화상채팅)
- 18일 공영장레 조문단 1~4기 후속모임(19시, 달품)
- 19일 아름다운재단 중간방문(10:30, 달품)
- 20일 추석맞이 합동 솔밭산 묘소참배(10시, 솔밭산)
사회연대쉼터 음악회 참석(17시, 귀정사)
- 21일 가을소풍(11시, 이기대 무장애길)
- 23일 제8회 장애.빈민 명절맞이 합동추모식
(11시, 영락공원)

- 24일 2025 장애인권리정책 핵심요구안 쟁취 결의대회
(14:30, 부산시청 앞)
공영장레 단편영화 제작과정 5강(19시, 달품)
- 26일 1017빈곤철폐의날조직위 기획회의
(19시, 부산대 인근)
서면시장 후원주점 참석(20시, 부산대 인근)

[10월]

- 14일 길위에 정기연습(19시, 달품)
- 15일 단편영화 '만남'팀 대본연습(19시, 발개마을센터)
- 16일 1017 주간선포 기자회견(11시, 부산시청 앞)
단편영화 '시간'팀 대본연습(19시, 달품)
- 17일 2025 1017 빈곤철폐의날 부산결의대회
(19시, 하트조형물)
- 18일 단편영화 '화해'팀 촬영(11시, 영락공원)
'만남', '시간'팀 연습(14시~ 발개마을센터)
- 20일 영화숙재생원협의회 공동체밥상 참석
(12시, 협의회 사무실)
- 22일 올바른 과거사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14시, 국회 앞)
- 23일 단편영화 '화해'팀 촬영(12시, 영락공원)
'만남'팀 촬영(17시, 영락공원)
- 24일 교육위&사회과학세미나 특강(19시, 달품)
: 5인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강사: 왕승민)
- 25일 대연우암공동체 주민한마당&기금 전달식
(11시, 마을)
- 26일 '만남', '시간'팀 촬영(13시, 청십자장례식장)
- 27일 1017 토론회 : 공영장레 조례 시행 3년,
성과와 과제(19시, 유라시아109호)
- 28일 길위에 정기연습(19시, 달품)
- 29일 서면시장 문화제 참석
- 30일 단편영화 '화해'팀 종파티(18시, 강원식당)



사진: 이연승 님

사진: 전상규 님

사진: 맹정은 님

부산반빈곤센터는 2010년 4월 1일 발족,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조적 빈곤을 철폐하기 위한 반빈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 기초생활수급 관련 상담 및 교육 ▲ 불안정노동철폐와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활동
- ▲ 공영장려 등 민중복지 쟁취 운동 ▲ 인권현안 연대사업 ▲ 1017반빈곤철폐의날 기획사업
- ▲ 새로운 교육실천을 위한 세미나 ▲ 노래패 길위에 등 소모임을 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발행 : 부산반빈곤센터 | 편집위원장 : 김원석 | 편집위원 : 김민수, 메밀, 전소현, 최고운
 부산 동구 초량로53 | cafe.daum.net/2010bac | bapc@daum.net | 051)645-0418

부산반빈곤센터 2025 사명·비전

기본적인 삶의 권리

서로 돕는 평등 공동체

주체적인 연대

생동감 넘치는 조직의 힘으로 빈곤과 차별의 벽을 넘는다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함께한다

- 회원이 200명이 된다
- 매월 1회 회원정기모임을 통해 회원 욕구를 파악한다.
- 모든 회원들이 사명, 비전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 역할이 분명한 운영위원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 운영위원들이 연 4회이상 별도로 마련한 조직강화의 시간을 가진다.

서로 배우고 모두 성장한다

- 교육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월 1회 회원교육을 진행한다.
- 전문성 있는 팀 활동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강사를 배출한다.
- 1인가구, 주거빈곤 당사자 조직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현장에서 힘을 모으고 연결한다

- 공간달품이 부산의 민중의집이 된다.
- 연대를 도모하는 달품콘서트를 개최한다.
- 회원들과 함께 월 1회이상 연대 활동을 한다
- 우호적인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긴밀하게 연대한다.
- 빈곤과 차별을 강화하는 법제도 제개정 운동을 한다.

일정안내

사회과학세미나 - 노동자 평의회

11월 14일(금), 12월 19일(금) 저녁 7시, 공간달품

2025 후원외방 달품콘서트 & 단편영화 상영회

12월 4일(목) 저녁 7시, 민주공원 소극장

인원파약을 위해 사전신청 부탁드립니다! bit.ly/2025달품콘

회 원 가 입

bit.ly/bapc2017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bapc0401
홈페이지 bapc.kr

후 원 계 좌

부산은행 101-2043-6389-04 (부산반빈곤센터)